

# 녹편주 (鹿鞭酒)

김영섭/백운당한의원 원장

해구신과 더불어 우리는 정력에 좋다 싶은 숫집슴들의 음경을 정력제로 많이 애용해 왔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의 음경만을 모아 술을 담가서 제품화하여 상품으로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지보삼편주」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생약제의 값이 비쌀 뿐 아니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술을 담그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한 가지씩 술을 담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일이다. 해구신주나 사슴의 음경(鹿腎)을 이용한 녹편주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녹신을 얇게 썰어 깨끗한 항아리에 넣고 고량주를 붓는다. 이때 녹신은 한 냥 정도하고 술은 뒷병의 반 정도만 붓는다

완전히 밀봉하여 어둡고 서늘한 곳에 약 1주일간 놓아둔다. 때때로 항아리를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것도 좋다.

일주일이 지나면 걸러서 매일 아침저녁에 소주잔으로 반 잔 정도만을 복용한다.

녹편주는 신(腎)이 허약하고 양기가 부족하여 음경의 발기가 잘되지 않거나, 여성들이 자궁이 냉하여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손발이 차고 이명을 호소하거나 어지럽다고 하는 증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

사슴의 음경은 약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신(腎)을 보하고 정(精)을 더해주며, 양기를 길러주고 성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력주(精力酒)로서뿐 아니라 남성 발기부전에 옛날부터 민간에서도 담아두고 애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녹신 하나만을 넣기도 하지만 여기에 한약재인 「음양곽」과 「구기자」등을 첨가해도 효과가 더욱 좋아지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단, 감기환자는 절대 복용을 금해주고, 녹편주를 마시는 동안에는 성교를 하지 않는 것이 녹편주의 효과를 100%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절제, 절제를 통하여 녹편주의 효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꿈을 주는 남자, 꿈을 꾸는 여자」에서 발체(도서출판 무한)

## ● 신/토/불/이

녹용도 우리 땅에서  
생산된 녹용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